

# 2008년 촛불 현상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고찰\*

전상진 | 서강대학교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촛불을 세대사회학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다. 크게 두 문제를 다룬다. 왜 20대는 촛불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또 촛불에 대한 기존의 세대사회학적 설명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에렌베르의 심리사회학적인(psychosociology) 명제, 즉 신자유주의와 우울증의 연결에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적 레짐에서 격화된 경쟁은 20대로 하여금 자기계발(self-management)에 매진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만든다. 그 결과는 바로 정치적 무관심이다. 세대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기존의 세대논의는 이 연구가 다루는 두 번째 문제다. 이 연구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세대 단위(Generationseinheit), 혹은 세대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치 않은 설명의 한계를 밝힌다. 또한 이 연구는 위의 한계가 이들 연구자들의 독특한 인식 방법(청소년 세대의 특성보다 성인세대의 기대와 우려를 중시하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촛불, 세대, 우울증, 자기계발, 정치적 무관심, 세대 단위

\* 이 글은 지난 2008년 8월 7일 열린 한국정치사회학회의 심포지엄 “촛불 이후-한국사회의 변화와 과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I. '촛불' 과 세대에 대한 두 가지 질문들

촛불현상은 세대사회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운동의 추동세력으로서 특정 세대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촛불소녀'가 처음 불을 지핀 이후에 그 자리를(이 자리가 빈 이유는 물론 다각적인 '탄압'의 성공적인 결과일 수 있다.) 20~30대가 주를 이루는 인터넷 활동가('아고라', '디씨' 그 외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등)가 이어받고, 다른 세대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 촛불운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대현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서술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연구자는 하나의 중심적인 문제를 축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보다, 세대와 연결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식으로 논문을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 다음 두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왜 20대의 참여가 저조했는가?(II절): 운동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점은 선봉에 선 '촛불소녀'였다. 정치와 관련하여 지금껏 이중적인 의미에서 주변화된 '10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섰다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도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 글은 질문의 방향을 틀어 '왜 20대는 거리로 나서는 것을 꺼렸는지'에 주목한다.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정치적 변동을 야기한 운동의 중심에는 지금껏 청년(정확히 대학을 다니는 후기 청소년)세대들이 있었다. 왜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는가? 이를 살피는 것이 II절의 목적이다.

• 세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조망(III절):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특정 세대와 연결시키는 것은 거의 자동적 반응이다(세대의 귀인이론적[attribution-theoretical] 사용법). 예를 들어 지난 2002년과 2003년의 큰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지식인들은 수없이 많은 세대명을 동원하여 운동의 주체를 묘사하였다. 이번 예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서는 두 시도, 즉 "88만 원 세대"(우석훈)와 "웹 2.0 세대"(김호기)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여기서 비판적 조명의 목표는 당연히 약점을 제거하고 강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모색의 중심에는 세대사회학의 개념과 틀거리가 선다.

## II. 무기력한 20대?<sup>1)</sup>

촛불은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다. 물론 이 글을 쓰는 현재에도 운동<sup>2)</sup>이 변화하고 진화하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자칫 선부른 추론에 머물 위험이 크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20대<sup>3)</sup>의 저조한(혹은 때늦은; 이하에서 ‘저조한’에 병기될 ‘때늦은’은 생략) 참여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느끼는 우리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다. ‘원더걸스’가 참석하는 축제 때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뭇 고요한 대학 캠퍼스는 촛불로 뒤덮인 광장과 사뭇 다르다. 그곳의 ‘10대 소녀’들의 발랄함은 두꺼운 법전이나 토의책들을 짊어지고 다니는 대학생들의 우울함과 기묘한 대조를 보인다. 대체 이들의 우울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1. “형님들, 토의책 덮고 촛불 좀 들어요”

이 절의 제목으로 인용한 레디앙의 기사(손기영 2008)는 대학생들의 저조한 집회참여를 질타하는 고교생들의 방담을 정리한 것이다. 레디앙의 다음날 기사는 “짱돌 토크, ‘20대’ 논쟁으로 뜨겁게 확산” 되었다고 전한다(김은성 2008). 레디앙의 보도 전에 이미 비슷한 사항을 한겨레가 다룬다(허재현 2008). 이 기사의 “10대에 비해 소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지금의 20대”가 얼마 전만 해도 “‘광장 세대’ 또는 ‘월드컵 세대’로 불리며 우리 사회를 놀라게 만든 주인공

- 
- 1) 이 절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쓰인 전상진(2008b)을 학술적인 양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부분이다.
  - 2) 아직까지 학술적 논의에서 촛불을 사회운동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정의해야 할지는 토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여기서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
  - 3) 이 글에서 10대는 학생, 20대는 대학생을 지칭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즉 학생이 아닌 청소년/년을 제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필자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

들이었” 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광장 세대의 활발했던 사회참여가 궁극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냉소주의로 변질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현재 20대에게 ‘88만 원 세대’라는 명칭을 부여한다(우석훈·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는 잔인한 경쟁에 내몰린 현재의 20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경쟁 대상은 동년배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다. 바로 이 점에서 20대의 ‘잘못된 운명’이 결정된다. 윗세대의 20대에 대한 착취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으로 표현된다. 말하자면 윗세대들은 자신들의 단단한 일자리(정규직)는 수호하고 20대에게는 말랑한 것만을 제공한다. 우석훈의 말처럼, 현재의 세대 간의 경쟁, 즉 “승자 독식 게임의 특징은 이기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파란 20대가 관록으로 뭉친 40대와 50대를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는가?”(우석훈·박권일 2007, 21). 그렇기에 우석훈은 “토폴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쟁들을 들”기를 20대에게 권고한다. 20대는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대 간의 착취를 문제로 삼아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대들은 한 명씩 자신의 고티방에 은폐되어 고립되고, 파편처럼 공격받으며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우석훈·박권일 2007, 290).

20대의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무기력은 ‘촛불소녀’의 참여적 목소리와 비교할 때 더욱 부각된다. 한겨레 신문 기고에서 그는 ‘한국의 좌파 소녀들’에 주목한다(우석훈 2008). 이들은 “이미 2년 전부터 (...) 전체 세대, 계층 혹은 직업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형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 이들은 어른들과 많이 달랐고, 특히 20대와는 분석변수에서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로써 왜 10대 소녀들이 집회의 첫 번째 촛불을 치켜들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10대 소녀들은 그렇다고 쳐도(물론 왜 그들이 등장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다), 왜 20대는 이렇게 무기력한가? 허재현(2008)이 말한 바처럼 정치적 좌절이 이들을 무기력하고 냉소적으로 만들었을까? 혹은 우석훈의 분석처럼 세대 착취의 결과인가?

---

4) 우석훈이 현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길, “40대와 50대 남자가 주축이 된 한국 경제의

이와 관련하여 필자 역시 나름의 해석과 가설을 여러 매체에서 밝힌 바 있다. 예를 들면 현재 10대의 주된 접촉 집단들, 특히 부모와 교사들이 이른바 386 세대에 속하기에 이런 사회화 환경이 그들의 특성, 즉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했다는 가설을 표현한 바 있다. 또는 10대와 20대의 공동체 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 지적은 세대사회학의 상식에 기반을 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다음 단락은 전상진 2004 참조).

근대의 세대운동과 동학(dynamics)은 근대 학교제도가 성립되면서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춘다. 학교제도는 동년배 학생들을 오랜 기간 다른 세대성원과 사회체도로부터 감금하여 나름의 생각과 의식을 만들 수 있도록(혹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돕는다. 오늘날 10대들은 이런 의미의 독립과 감금 상태에 있지만, 20대는 그것에서 이중적으로 '해방' 되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대와 요일은 물론이고, 학과 역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학부제는<sup>5)</sup> 현재 대학생들의 학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제도다.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은 집단행동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10대에 비해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20대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위의 가설에 기대어 여기서는 10대와 20대의 자유와 책임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20대는 10대에 비해서 더 많은 자유를 만끽하며 그에 상응하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가 바로 우울증이다.

---

주도 세력이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하는 형국이다.”(우석훈·박권일 2007, 274) 20대의 “막장” 적 성격은 결국 이와 같은 세대 착취의 결과다.

5) 이 부분은 현재 사회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광중현이 지적한 사항이다.

## 2. 우울증의 시대

한때 영혼의 고통은 고상한 것으로 간주된 적도 있었다. 미켈란젤로는 우울증의 예전 형태인 멜랑콜리를 기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von Thadden 2004). 예술가의 탁월한 감성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멜랑콜리는 자신의 개인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기에 미켈란젤로는 우울함을 기쁨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우울증은 대중 질병이 되었다. 한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우울증에 걸렸거나 이를 경험했다. 우울증은 사회계층은 물론이고, 문화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12세 이하의 아이들의 2%가, 20세 이하의 청소년 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 국민의 25%가 경증 이상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경험 포함) 한다. 우울증 확산의 또 다른 증거는 항우울제 사용의 확산이다. 항우울제 처방이 지난 몇 년 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하천의 수중생물들에게서, 영국에서는 식수에서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프로작(prozac)의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우정현 2006). 프로작은 인간과 동물 모두 복용할 수밖에 없는 '기적의 치료제'가 되었다.

그렇다. 우리는 우울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 공허감, 무기력증(행동장애), 탈진(burn-out)과 같은 우울증의 징후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sup>6)</sup> 프랑스 사회학자 에렌베르(Ehrenberg 2004)는 우울증의 갑작스런 부상과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분석(Psychoanalyse)의 태동기를 돌아본다. 프로이트는 심리적 고통에 언어를 부여한 사람이다. 그 이전까지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미친놈' 뿐이었다. 100년 전 프로이트의 시대에 우울증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다. 그의 치료 대기실은 대체적으로 히스테리, 강박증과 불안에 시달리는 환자로 가득했다. 말하자면 노이로제의 전성기였다. 에렌베르가 설명하길, 프로이트는 노이로제 개념으로 일련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여러 유형의 딜레마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주로 엄격한

6) 이외에도 수면장애, 삶의 즐거움의 실종, 자존감의 약화, 집중력 약화, 죄의식, 자살 충동 등이 있다.

규범과 규칙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노이로제는 “죄의식의 질병이다(Krankheit der Schuld).” 서로 충돌하는 규범과 규칙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상황의 해결은 특정 규칙을 위해 다른 것들을 무시, 즉 위반함으로써 가능하다. 규칙 위반으로 사람들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된다. 이러한 죄의식과 불안은 사람들을 움죄는 결과, 즉 노이로제로 나타난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그와 같은 죄의식의 빛이 바래지기 시작한다. 특히 종교적이고 성적인(sexual) 규범 위반과 연결된 죄의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른바 68혁명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이 혁명은 전통적인 규범을 파괴하고 창의성, 개인성, 그리고 해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외친다. 이 시대 이후에 적어도 서구 사회는 대대적인 규범의 변동을 겪고, 모든 것과 모든 이들을 움죄는 강제로부터 해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죄의식보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감정이 문제가 된다. 모든 강제에서 해방된 상황에서, 따라서 죄의식을 야기하는 규범적·문화적·심리적 경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가능성의 경계가 중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의 경계를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대체한다. 금지된 것을 욕망하고 행함으로써 생기는 죄의식은 사소한 일이 되고, 대신에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왜 그것밖에 못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불충분’의 사회적 낙인은 이른바 새로운 사회모델(신자유주의)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힘을 받는다. 이 모델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자아실현의 가치를 선호한다. 이것은 사회적 삶의 탈도덕화에 기여한다.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는 삶의 영위방식(Lebensführung)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된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물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물론 실패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이해(동정이나 공감의 의미에서)를 구할 수 없다. 자신의 행동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아실현과 자유와 책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현 사회의 규범이 되면서 곧 바로 새로운 부담으로 변화한다. 자아실현의 부담, 자유와 책임의 강제가 새로운 질

병의 뿌리가 된다. 에렌베르의 진단에 따르면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의 이념이 모든 사회영역에서 주도적인 것이 되면서 우울증이 확산된다.

더욱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한 변화가 우울증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켰다. 후에 에렌베르가 명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양자는 인과론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2006, 1). 심리적인 문제와 불편함을 우울증으로 정의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과정, 이를 연구하는 것이 그의 주목적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논의가 기대는 세 전제를 덧붙인다. (1)오늘날 심리적 문제가 과거보다 더 커진 것은 아니다. (2)우울증 담론이 표상하는 새로운 규범(불충분은 죄악이다!)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우울증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질병화한다. 질병은 문제지만, 모든 문제가 질병은 아니다. 질병화된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답변’)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를 위한 노력이 이에 속할 것이다. 질병화된 우울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힘을 내도록 독려하는 역할(mobilization effect)을 수행한다.<sup>7)</sup>

연구자는 ‘자기계발’을 독려된 사람들의 ‘답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문제의 질병화는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충분함에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도 고통받는다. (3)불충분을 죄악시키는 규범은 자본주의에서 파생된(마치 하부구조에서 도출된 상부구조처럼)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필자는 양자의 독립적인, 그러나 선택친화적인(wahlverwandtschaftliche) 관계를 볼탄스키와 치아펠로(Boltanski & Chiapello 2005)가 상정하는 자본주의와 “새로운 정신(der neue Geist)”의 관계에 빗대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노이로제가 죄의식의 질병이었다면, 우울증은 자율과 책임의 질병이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자아는 에렌베르의 표현을 따르자면 “탈진한 자아(das erschöpfte selbst)”다. 신자유주의적인 환경에서 요구(직업, 가족, 교육 등)들은 끝이 없다. 개인들은 언제나 그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달려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무한한 요구는 말 그대로 “투쟁 영역”을 모든 생활영역으로, 이를테면

---

7) 물론 모든 것을 포기하게도 만든다. 이하에서 사용될 유형개념인 ‘우울한 세대’에서 지칭하는 우울함은 바로 이런 의미의 우울함을 지칭한다.

생업은 물론이고, 사랑과 우정, 교육과 지식, 그리고 섹스에 이르기까지 “확장”한다(Houellebecq 2003). 무한히 확장된 투쟁 영역에서 나타나는 영속적인 경쟁은 언제나 탈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일반화하고 일상화한다. 여기서 우엘벡(Houellebecq)의 조언이자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투쟁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기억하라.”

금지와 복종 규율의 심리적 결과인 노이로제는 영속적인 동기부여와 각성으로 인한 탈진의 결과인 우울증에게 자리를 내준다. 역할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과 이에 상충하는 욕망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규율사회의 노이로제 환자는 무한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시달리는 현대사회의 우울증 환자인 “부족한 인간(das unzulängliche Individuum)”을 후계자로 지목한다(에렌베르 2004). ‘부족한 인간’은 적극적인 행동이 요청되는 곳에서 아무런 힘도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 창조성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다. 세넷(Sennett 2002)이 지적한 바처럼 ‘유연성의 강제’ 속에서 인간은 정신적·감정적으로 강박해진다. 자의식은 무엇보다 자기에 대한 회의로 구성된다. 결정 능력은 물론 위험을 감당한 용기도 없다.

### 3. 심리치료와 자기계발, 그리고 민주주의

에렌베르는 심리질환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치료 방법을 구분한다. 하나는 고장난 신체 부위를 ‘수리’하는 관점이고(심리치료, psychotherapies), 다른 하나는 이른바 ‘계몽’의 관점이다(psychoanalysis). 프로이트는 후자를, 동시대의 프랑스 심리학자 피에르 자네(Pierre Janet)는 전자의 관점을 대표한다. 자네는 심리적인 문제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최면술과 같은 것으로(후에 전기충격을 거쳐 항우울제로 발전) 정신적인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여기서 환자는 고장난 기계로서 의사의 처치에 내맡겨진 존재로 간주된다. 의사는 일종의 기능공으로서 고장난 심리부품을 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네식의 치료 방식은 고장의 원인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단지 인간의 고장난 부위만이 고려의 대상이며, 인간이 다시금 행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달리 프로이트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중시한다. 때문에 그는 원인을 찾기 위해 분석(그렇기에 정신분석)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과정에서 질병의 사회적 원인이 고찰되기 시작했다. 치료는 자네의 독점적인 치료 대상인 심리적인 기관만이 아니라, 그것과 사회적 조건의 연결 고리를 주된 탐구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치료의 목표는 고장의 제거나 이전 상태의 복원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으로 하여금 갈등과 충동을 감내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성의 구성 요소로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에렌베르 2004).

프로이트는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죄의식을 정신질환의 핵심적인 범주로 상정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하나의 규범이나 관례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을 했기에 죄의식이 발생한다. 따라서 죄의식은 필연적이다. 이 죄의식은 의사의 수리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약물을 통해 그것을 약화(중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약물이 죄의식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는 죄의식의 원인을 드러내어 그것을 제거하거나 용인하도록 한다. 물론 죄의식의 필연성을 생각하면 원인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다. 용인은 죄의식의 불가피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환자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는 방법, 즉 자신의 죄의식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혹은 그것에 대한 내구성(내구성)을 키우는 방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능동성과 내구성이다. 환자는 자신이 직면한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에 능동적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하며, 그것에 대해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자네와 프로이트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프로이트가 승리한 듯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자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는 곧 고장난 심리부품을 수리하는 기능공인 의사의 권위의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치료제의 승리다. 자네의 승리는 심리적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갈등을 회피하는, 즉 더욱 쉬운 방법의 승리로 귀결된다. 에렌베르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만약 의학적인 치료로 (...) [심리질환이] 치유될 수 있다면, 왜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갈등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가?(에렌베르 2004,

122)” 말할 것도 없이 갈등 상황에 대한 직시는 치료제를 통한 의학적인 치료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경제적이지도 못하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처럼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인 규범과 관례들이 많은 영역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원자화와 함께 해방으로 표현되는 개인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우울증은 몇몇 예술가나 정치인의 세계를 떠나 일반적인 재화가 된다. 이때부터 환자들이 급격히 늘게 되는데 그것의 원인은 분명치 않다.<sup>8)</sup>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엄청난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매우 조밀하게 채워지고, 과도한 요구는 지속적인 상태로 정착된다. 사회적인 연결망(가족, 친족, 공동체)은 붕괴되고, 소용돌이 속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묶어주는 사회적인 닻(anchor)은 특히 그것을 극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희소재가 된다. 자유, 자율적인 결정, 그리고 해방은 삶의 행로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외적인 곳에서 자신을 이끄는 힘과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 밖에서 찾지 못하면, 안에서 찾으면 된다. 즉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로 귀환, 혹은 도피한다. 귀환의 실패는 우울증으로, 도피의 성공은 유사종교나 자기계발로 나타난다. 우울증과 내적인 도피는 “투쟁영역의 확장”과 사회적 요구의 폭발적 증대에 대한 등가(等價)적인 대처 방안이다.<sup>9)</sup>

내적인 세계로의 성공적 도피는 진정한 자아를 찾거나 하는 노력에서 시작한다. 70년대, 특히 80년대와 90년대 서구에서는 비교적인(esoteric) 유사종교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 유사종교적 상품, 이를테면 뉴에이지(New Age), 이단적 종교집단(sect), 영혼성(spirituality)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외적인 원인들은 무시되거나 회피되고, 모든 문제를 내적인 평

8) 그 원인으로 변화된 진단 방법, 혹은 변화된 삶의 조건들, 혹은 환자의 실질적인 증가 등이 제시된다.

9) 에렌베르(2004)는 ‘중독 인간(süchtige: 약물, 쇼핑, 스토킹 등의 모든 가능한 중독)’을 우울한 인간의 거울에 투영된 인간상으로 간주한다(간략한 정리는 Reckwitz 2006, 626 참조).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자기계발도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장희정·전상진 2007 참조).

안과 안정으로 해결하려는 운동들이 급성장한다. 유사종교적 상품의 치유 방식을 에렌베르는 원인보다 고장난 신체에 집중하는 자네의 관점의 계승이라고 본다. 계속해서 에렌베르는,

“이와 같은 치료적인 종교성은 [자네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집중한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를 유포하고 치료를 믿음으로 고찰한다.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병리학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아마도 새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네의 관점을 수용한다. 즉] 고장의 원인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힘을 강화시키려 노력한다.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 심리적인 갈등에 대한 내구성을 키우는 노력은 무의미하며, 문명의 게으른 저주로 간주된다.”(2004, 140; []은 필자)

에렌베르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흐름은 바로 ‘자기계발’ 운동이다. 유사종교적 운동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는 이 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dden 2002). 자기계발은 ‘행위자가 자기 변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 특히 자기 관찰, 개입(학습),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실천’을 말한다(장희정·전상진 2007).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자기계발에 대한 찬미는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 사회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자기계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자신이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정신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계발에 심취한 사람은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 닥칠 경우, 그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자기계발계의 구루(guru) 스티븐 코비(1994)가 말하듯, ‘성공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의 하나인 자기주도성은 “내면에서부터 변화하여 외부로 향하는 것은 물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한 자기계발 수행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전에는 환경 탓만 하면서 그것만 갖고 남의 핑계만 대고 있었다면, 지금은 처음엔 환경 탓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될까를 고민합니다. (...)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좌절하지 않고즉 조금 덜 좌절하고, 좌절해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환경 탓만 하고 주저앉아버렸는데, 이제는 실패 또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는 환경에 대한 체념과도 연결된다. 또 다른 자기계발 수행자는 그러한 체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환경이요? 그래도 어차피 안 바뀌지는 거고 … 내가 할 수 있는 건 …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자기계발 수행자들은 환경을 개인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자신이 변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변화에 있어서 변화의 주체, 즉 ‘나’의 변화는 자기변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더라도, 자기계발 수행자들의 시작점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 즉, ‘내가 변하면 성공한다’는 진리가 개인, 조직, 사회 변화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자기계발 수행자에게서 확인했던 위와 같은 특성들은 결국 “개인화의 통치”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Masschelein & Ricken 2003, 144;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는 전상진 2008b 참조). 개인화의 통치는 “개인들을 분할하고, 타인들과의 연결을 분쇄하고, 그러나 또한 개인들을 진정으로 개인으로 만드는 것을 훼손”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요컨대 개인화된 자기통치는 사람들을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시키고, 결과적으로 탈정치시킨다. 자기계발과 심리치향적인 문화는 동일한 효과를 자아낸다. 사회학자 래쉬(Lasch)는 현대 미국의 문화(심리치료 문화)를 나르시시즘적 문화로 보면서, 이 새로운 문화가 이제껏 “미국 문화의 골격을 이뤘던 종교를 대치한 이후 치료에 대한 전망이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보루인 정치마저 대치시키려고 위협한다. 관료 제도는 집단적 불만을 치료가 개입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로 변모시켰다”고 주장한다(1989, 29). 심리치료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순전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고통의 사회적 원인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에렌베르의 입장에서 후기 근대에 등장한 유사종교와 자기계발(심리치료), 그리고 우울증의 특성은 바로 갈등의 회피와 그로 인한 탈정치화로 볼 수 있다. 물론 자기계발과 우울증은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다. 갈등의 해결에 직접적

으로 힘쓰기보다 이를 없애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의 관점에서만 고찰하는 것이다. 개인성·주체성과 민주주의에게 갈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로 파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갈등의 생산적인 ‘길들이기’를 의미하며, 사회적인 것의 다차원적인 단절과 분리를 갈등적인 사회의 통일체로 통합한다(바로 밑에서 상술). 개인의 수준에서도 갈등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서로 충돌하는 욕구로 단절되고 분리된 자아는,” 이를 프로이트의 용어로 말하면 이드, 자아와 초자아로 분절된 자아는 “욕구 간의 갈등이 촉발하는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자아로서 등장한다”(에렌베르 2004, 257f). 계속해서 에렌베르는,

“갈등의 제도화로 서로 모순적인 이해관계들이 자유롭게 서로 대적하게 되고,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무대에서 사회적인 차이와 거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심리적인 갈등은 자신의 위상과 그것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 조건이 된다. 그것은 근대적인 개인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정치적인 삶이나 사적인 삶에서 갈등은 민주적인 문화의 규범적인 핵심이다.”

하나의 사회적 생존단위, 즉 집단이나 조직, 혹은 국가가 통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갈등이나 대립, 혹은 모순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특성들을 여전히 지니면서도 하나의 단위로서 지속되고 진화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학은 다양한 집단들, 즉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집단들은 나름의 이해를 지니기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학내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 특성들을 회피하고 무시하여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통’을 통해 양보와 인정,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룩되는 것이다.<sup>10)</sup>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민주적 사회는 정치적 주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 주체는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으며(위 참조) 그래서 자신의 감정

10) 물론 여기서 ‘소통’은 현 대통령이 언급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상태(자아로의 몰입)에서 벗어나 자신의 환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에렌베르 2004).

그러나 우울증과 자기계발의 시대에 지배적인 새로운 정치적 관점은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근거한 갈등에 주목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치의 목적은 규범적이며 사회구조적인 강제와 억압을 철폐하여 개인적인 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다(에렌베르 2004). 관료제뿐만 아니라 연대성, 사회정의, 평등지향성도 새로운 정치의 눈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강제와 억압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항목들은 사회적 갈등을 풀려는 노력이 제도화되면서 나타난 성과물이기도 하다. 결국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대신에 자폐증과 활동향진성(hyperactivity)이 그 자리에 선다. 이제 개인은 자폐적인 세계에서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전통적 의미의)정치는 소멸된다.

#### 4. “대학생이여, 너의 스펙에 목숨을 걸어라!”

이 절의 제목은 2008년 4월 한 대학에서 열린 특강의 안내 포스터의 카피다. 한국의 청소년/년들은 두 가지에 목숨을 건다. 대학 이전에는 성적에, 대학 이후에는 ‘스펙’에! 목숨을 건다는 점은 같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대학 입학 이전의 청소년/년들이 규율과 억압이 지배적인 학급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산다면, 대학생들은 자율과 해방(물론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의 기조에서 철저히 개인화된 상황에서(제도적으로는 학부제) 생활한다. 바로 여기서 ‘촛불소녀’와 ‘무기력한 20대’의 분리가 시작된다.

규율과 억압적 상황에서 성장하는 10대 청소년/년들은 에렌베르가 말하는 의미에서 집단적으로 갈등에 대처한다. 육체적 피로(‘0교시’), 학업 부담(‘영어 몰입교육’과 ‘일제고사’ 및 ‘학교의 과외화’), 그리고 건강의 위협(‘쇠고기’)과 같은 상황은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처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에 반해 자율과 해방적 조건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대학생 청소년/년

들은 ‘자아로의 몰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한쪽에서는 자아계발이라는 치료요법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울증에 빠진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어린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다. 물론 자율과 해방만이 20대의 ‘자아로의 후퇴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10대보다 ‘불안정(précarité)’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적 환경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빈곤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 80년대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불안정’ 개념은 “개인과 가족이 기본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기본 권리들을 향유하도록 허용하는 안정(장치들)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이영자 2002, 22). 부르디외(Bourdieu 2004, 126)가 “새로운 유형의 지배양식”이라고 명명한 불안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강제하고 착취를 수락하게끔” 한다. 고용관계에 국한해서 말하면, 불안정은 고용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어(세넷 2002) 피고용자들의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전통적인 사회적 경계(계급, 지역, 세대)에 근거한 경쟁은 개인적 경쟁으로 변화된다. 부르디외(2004)가 표현한 바처럼, 오늘날과 같이 “실업률이 최고에 도달할 때, 그리고 불안정 취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일자리는 매우 “귀한 것이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감사하게 된다.” 그 결과 “일을 잡기 위한 경쟁은” 매우 가혹하며, 이 경쟁은 “야만적이다.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진짜 투쟁의 원리로서 인간의 모든 연대와 인간성의 가치를 파괴” 한다.

이것이 ‘집단적 우울증에 빠진 세대’로서, ‘자기계발 세대’로서, 무엇보다 ‘88만 원 세대’로서 오늘날 20대가 직면한 상황이다. 비인간적인 경쟁의 파괴적인 결과는 사실 개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 물론 사회학자 앤터니 기든스(A. Giddens)나 울리히 벡(U. Beck)과 같은 이들은 ‘자기계발’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소용돌이를 성공적으로 ‘서핑’하기를 권고하기도 한다(서지사향 및 연결된 논의는 전상진 2008b 참조). 우석훈이나 부르디외는 정치적 행동, 즉 “토폴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쟁들을 들”고 저항하기를 권유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저항도 서핑도 못한다. 현실의 소용돌이를 지배하지도 이에 대항도 하지 못한 채, 우울증에 빠져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고, 공허감에 괴로워하고, 무력감에 빠져 중국엔 소용돌이에 휩쓸려 “표

류” 하는 것이(세넷 2002) 20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 III. 세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조망: 세대(단위) 유형학(Generationentypologie)을 중심으로

바로 앞의 단락에서 우리는 오늘날 20대를 ‘집단적 우울증에 빠진 세대,’ ‘자기계발 세대,’ 그리고 ‘88만 원 세대’로 정의했다. 하나의 집합체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사용 맥락에 따라 한 세대는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정당하다(전상진 2002). 예컨대 문화적 맥락, 정치적 이슈, 경제적 연관에서 한 세대는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앞서 언급한 다양한 세대 명칭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항, 즉 (1) ‘세대형성과정의 다양한 계기’ (전상진 2002)와 (2) ‘세대유형학’이다.

(1)하나의 사회적 집합체로서 세대는 다양한 계기(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사회학의 상식이 된 만하임의 틀거리인 “세대위치/실제세대/세대단위(Generationslagerung/-zusammenhang/-einheit)”는 이들 계기를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한 도구다. ‘위치’는 한 세대가 처하게 된 생물학적이며(출생의 동시대성) 전체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 실제세대는 공통의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행동(=참여)할 때, 세대단위는 참여를 넘어 “하나의 통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공명(Mitschwingen)”하는 집단(적 특성)을 말한다(Mannheim 1964, 547).

(2)만하임은 세대단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대단위의 유형학은 하나의 세대 내부의—흔히 집단적 형태를 취하는 공동체의—분화와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만하임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파시스트적인 단위와 좌파적 단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독문학자 페터 쟈(Petersen)를 따라 “주도적인, 조종되는, 억압된 세대유형(führende, umgelenkte, unterdrückte Generationstypen)”을 나눈다. 연구자는 만하임의 길을

따라 현재 촛불정국에서 등장한 다양한 세대담론을 유형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 작업에서 연구자는 유형학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서구 청소년 사회학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기의 ‘탈표준화와 탈구조화’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청소년기의 탈표준화와 탈구조화란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제도와 조직(regime)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적 생애사들의 차이가 커지고 그 변이형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애단계의 탈표준화와 탈구조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고등교육 단계를 마치면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취업과 실업의 중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프리타”).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에 대한 진단이 흔히 상정하는 ‘단일한 세대’의 전제는 포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세대명명은 많은 경우 그들의 특성에서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성인세대의 기대와 우려의 투사(projection)인 경우가 많다**”(전상진·정주훈 2006; 어색한 표현을 필자가 수정하였고, 강조는 첨가; 강조한 부분은 후에 다시금 인용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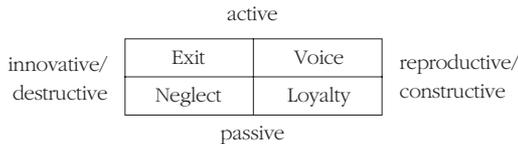
요컨대 청소년 세대에 대한 담론에서 흔히 확인되는 ‘단일한 세대’에 대한 가정과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세대명칭은 전체 세대보다는 특정 세대단위에 적합하다. 이를테면 이 연구에서 언급한 “자기계발세대,” “우울한 세대,” 혹은 그 유명한 “88만 원 세대”나 “web 2.0 세대”는 전체 세대보다는 세대단위에 더욱 적합한 명칭이다. 이들 단위들을 하나의 큰 지도 속에 위치시키는 작업은(이른바 ‘mapping’) 다양한 현재 청소년 세대의 특성들을 적절히 포착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다채로운 상호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자는 위에서 인용한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세대유형학을 시도했다. 그곳에서 연구자는 이른바 서로 구분되는 성장경로라는 두 가지(역설적인) 축<sup>10)</sup>을 mapping의 기본조건(지도)으로 사용하였다. 그것과는 별개로 여기서는 촛불정국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태도와

자세를 파악하는 데 허쉬만(A. O. Hirschman)의 정치적 선택의—물론 수정된—모델을 사용한다.

잘 알려진 바처럼, 허쉬만은 ‘퇴조하는 기업, 조직, 정당, 국가’에 대해(말하자면 그에 실망하여) 행위자들이 세 가지 가능성, 즉 퇴장-항의-충성(Exit-Voice-Loyalty)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허쉬만 2005). 퇴장은 다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조직을 탈퇴하거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민을 가는 것을 말한다. 항의는 기업이나, 조직 운영자, 혹은 위정자에게 (품질)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이다. 충성(혹은 관성)의 옵션은 설령 현 상황에 불만스럽더라도 개선되리라는 희망 속에서 그들에 대해 지속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자 러스벨트(Rusbult)와 동료들은(1982) 허쉬만의 작업을 재해석하여 제4의 가능성, 즉 무시(neglect)를 틀거리에 포함한다. 무시는 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안하면서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에서 “innovative”와 “reproductive”는 연구자의 표현이다. 이 표현들을 첨가한 이유는 destructive/constructive라는 표현이 갖는 일방성을 교정하기 위함이다. constructive는 사회적 관계의 지속과 유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반대로 destructive는 관계의 종식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한다. 같은 사태를 다른 관점에서도 묘사할 수 있다. 즉 constructive는 기존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며, destructive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그림 1〉 EVLN model




---

11) 성인 지향(미래 중시)의 축과 청소년(문화) 지향(현재 중시)의 축을 교차시킨 지도는 청소년 유형의 다양성과 그들의 상호관계, 또한 성인 세대와의 관계(세대 관계)를 표현하는 유용한 도구다.

〈그림 2〉 항의와 퇴장의 교차 모델

|    |    |                   |         |
|----|----|-------------------|---------|
|    |    | 퇴장                |         |
|    |    | 퇴장                | 잔류      |
| 항의 | 항의 | 항의하며 퇴장<br>(저항투표) | 항의하며 잔류 |
|    | 침묵 | 조용히 퇴장            | 조용히 잔류  |

\* 강원택(1998, 198)의 내용에 따라 연구자가 작성

이 모델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예컨대 강원택(1998)은 베리(Barry, Brian)의 예를 따라 〈그림 2〉와 같은 구분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EVLN 모델에 기대어 세대 유형들을 정리한다. 이유는 현 후기청소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수동성과 순응성을 표현하는 무시와 충성 범주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치적 항의는 체제유지적이며 향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건설적이다(reproductive/constructive). 또 다른 능동적 태도인 정치적 퇴장은 현 상황을 혁신적으로 타파하거나 파괴하는 뜻을 지닌다(innovative/destructive). 수동적인 선택안인 무시와 충성 역시 혁신과 체제유지의 스펙트럼에 위치시킬 수 있다. 요컨대 능동적이며 혁신적/파괴적인 퇴장, 수동적이며 혁신적/파괴적인 무시, 능동적이며 체제유지적/건설적인 항의, 그리고 유지적/건설적이지만 수동적인 충성의 선택안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세대(단위)유형을 위치시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다음 모델에서 web 2.0<sup>12)</sup>는 탈출의 (1)과 항의의 (2)로 구분하였다. 이들을 구분한 근거는 기존의 정치/정당에 대한 태도다. (1)은 제도권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강하게 보인다. 물론 특정 정치인이나 지식인에 대한 호감과 신

12) 세대 상방향 소통 web 2.0 세대는 (1)개인주의적이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고, (2)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은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이며, (3)자아실현을 소중히 하는 탈문질주의적 성향을 지니며, (4)부모인 386 세대로부터 사회비판 의식을 상속받은 세대다(김호기, 한겨레신문, 2008/05/14).

〈그림 3〉 세대(단위)유형 구분

|                            |                                                                                                            |                                                                                                      |
|----------------------------|------------------------------------------------------------------------------------------------------------|------------------------------------------------------------------------------------------------------|
|                            | active                                                                                                     |                                                                                                      |
| innovative/<br>destructive | Exit<br><br><b>web 2.0세대(1)</b><br>“아고리안”,<br>“디지털 케릴라”<br>[세대 소속이 부분적으로 겹치는 동류: “배운여자”, “유모차부대”, “에비군부대”] | Voice <sup>13)</sup><br><br><b>web 2.0세대(2)</b><br>“다함께”, “고려대녀” (Left)<br>“XX대녀”, “알마?” (New right) |
|                            | Neglect<br><br><b>88만 원 세대(1)/<br/>우울한 세대</b>                                                              | Loyalty<br><br><b>88만 원 세대(2)/<br/>자기계발 세대</b>                                                       |
|                            | passive                                                                                                    | reproductive/<br>constructive                                                                        |

회를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개인에 대한 것에만 한정된다. 이는 강기갑과 진중권, “고려대녀”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그들이 대표(홍보)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의 격차로 설명된다. 특정 정당의 청년조직 ‘다함께’의 이른바 ‘확성기녀’에 대한 반감은 동일한 기조의 상반된 표현으로 생각된다. (2)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조직에 소속된 청소년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제도정치를 통해 현 상황의 타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1)과 구분된다. 이 내부에는—이미 만하임도 지적했던 것처럼—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세대단위가 있다.

연구자는 88만 원 세대도 무시의 (1)과 충성의 (2)로 구분하였다. (1)은 현 상황이 문제적이라 생각하지만, 이를 타개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 참여의 결과에 대한 실망, 혹은 환상이 깨지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층일 수 있다(‘냉소적 세대유형?’). (2)는 현 정권 지지자로, 촛불문화제

13) 밑의 예시들은 경험적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폄하하거나 영웅시하려는 목적이 없음을 밝힌다.

에 대해 불편해 하지만, 이에 대해 '항의' 할 생각이 없는 층이다. 이 세대유형의 두 동료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 자신으로의 침잠이다. 자기계발 세대의 관심은 오직 '개인의 성공' 뿐이다. 정치적으로는 현 상태(정권)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보인다("무슨 큰일이 있겠어?" "뭐 다른 선택안도 없었잖아." "그럼에도 역시 문제는 내가 하기 나름 아닐까?"). 개인으로의 침잠과 사회가 설정한 성공이라는 목표에 매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상황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그림의 오른쪽에 이들을 위치시켰다.

물론 자기계발과 관련한 연구과정에서 필자는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자기계발자들은 물론, '좌파'도 발견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된 가치 지향점은 "나", "내 지근거리", 그리고 "성공"이다. 우울한 세대는 후기 근대화(표현이 어색하지만 두 트렌드, 즉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를 통칭하는 의미에서 사용) 과정의 패배자로 사회적 교류와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힘들고 어색한 사람들이다. 에렌베르나 우엘벡이 묘사한 바처럼 이들 '부족한 인간'들은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혹은 못하여), 자기 자신으로 후퇴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중요한 특색은 레크비츠(Reckwitz 2006, 626)가 정리한 바처럼 행동장애(Handlungshemmung)와 불안정한 정체성(Identitätsunsicherheit), 그리고 표현불능성(Expressionlosigkeit)이다. 이런 인간유형을 우엘벡(2003)의 '그,' 그리고 한국의 동료인 구경미(2008)의 주인공을 비롯한 다수의 인물(예컨대 김세준)에서 찾을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우울한 세대는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유형은 위의 설명이 그대로 부합되는 행동장애와 표현불능성을 지닌 우울한 세대의 순수형, 그리고 자극(kick)과 쾌락만을 좇는 향락주의자(hedonist) 세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촛불정국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후기청소년 세대를 경험적 단위들로 특정화하기에 너무 크고 거칠거나 편향적이라는 점이다. 먼저 88만 원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88만 원 세대는 세대위치와 경제적 세대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88만 원 세대는 세대위치와 연결된다. 세대위치는 참여적 특성을 지닌 실제세대나 집단적 성격<sup>4)</sup>을 지닌 세대단위를 지칭하기보다는 '공통적 숙명'을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세대위치는 단지 개연성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구체적인 세대현상, 예컨대 참여나 운동의 단위가 형성될 수 있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특정 세대가 참여하는 양식이나 운동의 단위로서 표현하는 특성은 그러한 필요조건과 개연성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 방식, 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방식은 사회적 현상이 지닌 창발적(emergent) 속성으로 인해 필요조건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다.

세대단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88만 원 세대는 현재 한국의 후기 청소년 세대가 직면하는 전반적인 조건, 즉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세대보다 높다는 개연성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이나 태도는 세대위치에서 추론될 수는 없다. 요약하면, 세대위치를 겨냥한 88만 원 세대 개념은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세대 현상의 일정 부분에만 설명력을 지닐 뿐이다. 따라서 세대단위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어떻게 실제세대로 형성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sup>15)</sup>

경제적 세대는 “경제적 기회와 위험의 공유”가 중요한 요건이다(전상진 2002). 경제적 세대귀속 여부는 보통 구조적인 조건들, 구체적으로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혹은 국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건들은 각 출생 코호트에게 일종의 ‘집합적 숙명’으로 작용한다. 주로 경제적 재화의 획득기회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경제적 세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출현하였다. 예컨대 대공황과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사건이나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는 특정 세대를 경제적 세대화한다. 뉴질랜드의 어떤 연구자는 연금혜택과 납부의 대차대조에서 승리자 세대(납부는 적지만 연금혜택을 받는 세대)와 패배자 세대(납부만 하고 혜택을 못받는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 사전적 의미에서 집단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물론 세대단위 소속원들이 꼭 서로를 알아야 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하임(1964, 547)은 느슨한 참여 결사체보다 강력한 집단적 정체성을 지닌, 그래서 “통일적인 반응”을 보이는 집합체를 세대단위로 구분한다.

15) 연구자는 이전 작업에서 이를 ‘구성주의적 계기’라고 표현한 바 있다(전상진 2004). 물론 이런 구성주의적 계기는 구조주의적인 조건(부르디외; 여기서는 세대위치)에 제한되고 구속된다.

(일종의 세대 음모론!). 88만 원 세대 역시 이런 세대 음모론과 매우 흡사하다. 이 세대론의 또 다른 한계는 미시적인 가족 수준에서 나타나는 재화의 트랜스퍼를 적절히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기회를 독점하고, 부를 축적한 장년 세대는 또한 88만 원 세대의 부모이기도 하다. 사회적이며 거시적인 영역에서 세대들은 경제적 기회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투쟁할 수 있지만, 미시적인 영역에서는 화합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88만 원 세대론의 긍정적인 자극과 필요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면적인 시각이다. 그 일면성은 추측컨대 이 절의 앞부분에서 인용한 “성인 세대의 기대와 우려”가 “투사”된 결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88만 원 세대는 현재 후기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지나치게 ‘세대관계’의 틀에서 해석한다. 물론 연구자 역시 세대는 관계론적 개념(relational concept)으로 세대관계에서 비로소 그것의 온전한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전상진 2004). 하지만 세대관계는 경제적 기회를 둘러싼 영역에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인 측면, 특히 이 연구와 연관되어서는 정치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이 논문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88만 원 세대의 내부적인 다양성, 즉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다양성을 시험적으로 밝혔다.

88만 원 세대에 대한 비판은 많은 부분 web 2.0 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세대론에 대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특정 세대 단위와 유형을 부당하게 일반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세대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무력해 보인다. 예컨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른바 ‘알바’; 물론 진짜 알바는 제외하고)도 이에 속하는가? 정치에 전적으로 무심한 자기계발 세대나 우울한 세대들은? ‘알바’, ‘자기계발자’, ‘우울자’ 들은 web 2.0의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세 가지는 공유한다(당연히 모두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은 386의 정치적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기에 영예로운 칭호에 부적합한가? 혹시 연구자의 정치적 편향이 이들에게 투사된 결과가 아닐까? 요컨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경우, 즉 “성인 세대의 기대와 우려의 투사인 경우”가 아닐까?

## [참고문헌]

- 강원택. 1998.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항투표: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32(2): 191-210.
- 구경미. 2008. 『미안해, 벤자민』. 서울: 문학동네.
- 김은성. 2008. “짱돌토크, ‘20대’ 논쟁으로 뜨겁게 확산”(레디앙 08/05/23).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853> (검색일: 2008.8.1).
- 래쉬(Lasch, C.)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최경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부르디외(Bourdieu, P.). 2004. 『맞불』. 현택수 옮김. 서울: 동문선.
- 세넷(Sennett, R.).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조용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 손기영. 2008. “형님들, 토익책 덮고 촛불 좀 들어요”(레디앙 08/05/22).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834> (검색일: 2008.8.1).
- 우석훈. 2008. “움직이는 10대 소녀, 어떻게 볼 것인가?”(한겨레 08/05/0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86456.html> (검색일: 2008.8.1).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 원 세대』. 서울: 레디앙.
- 우엘벡(Houellebecq, M.). 2003. 『투쟁 영역의 확장』. 용경식 옮김. 서울: 열린책들.
- 우정현. 2006. “폐기의약품 생태계 파괴 ‘민물 홍합이 멸종되고 있다.’”(메디컬투데이 06/09/1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0166&cate=&sub=&page=1182> (검색일: 2008.1.13).
- 이영자. 2002. “프랑스의 ‘좌익 근대화’와 배제의 사회.” 『현상과 인식』 88: 9-36.
- 장희정·전상진. 2007. “자기계발의 시대, 자기계발의 약속, 그리고 자기계발의 위험.” 비판사회학대회. “민주화20년과 포스트 87년 체제의 전망”(2007년 11월 3일), pp. 402-412.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
- \_\_\_\_\_.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25(2): 193-230.
- \_\_\_\_\_. 2008a. “자기계발의 사회학. 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5(2): 103-140.

- \_\_\_\_\_. 2008b. “우울증, 자기계발, 민주주의: ‘쫓불 소녀’와 ‘무기력한 20대’에 대한 사회학적 소묘.”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인문세미나 교재개발위원회 (편). 『현대사회와 인문학적 상상력 II』.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pp. 89-109.
- 전상진 · 정주훈. 2006. “한국 후기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2): 261-285.
- 코비(Covey, S.). 1994.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박재호 외 공역. 서울: 김영사.
- 허쉬만(Hirschman, A.O.). 2005.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기업 조직 및 국가의 퇴보에 대한 반응』. 강명구 옮김. 서울: 나남출판.
- 허재현. 2008. “그 많던 20대 ‘광장 세대’는 어디로 갔나”(한겨레 08/05/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835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8356.html)(검색일: 2008.8.1).
- Boltanski, L., & E. Chiapello. 2005. *The new spirit of capitalism*. Verso.
- Ehrenberg, A. 2004. *Das erschöpfte Selbst*. Campus.
- \_\_\_\_\_. 2006. *Das erschöpfte Selbst. Spätmodernes Leben zwischen Autonomie und Depression*(Vortrag am 18. Januar 2006, Berlin, Galerie der Heinrich-Böll-Stiftung). [www.gruene-akademie.de/download/depression\\_Ehrenberg.pdf](http://www.gruene-akademie.de/download/depression_Ehrenberg.pdf)(2008/5/21 인출)
- Masschelein, J., & N. Ricken. 2003. “Do we (still) need the concept of Bildung?”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4(2): 139-154.
- Reckwitz, A. 2006. *Das hybride Subjekt*. Velbrück Wissenschaft.
- Redden, G. 2002. “The New Agents. Personal transfiguration and radical privatization in New Age self-help.” *Journal of consumer culture* 2(1), pp. 33-52.
- Rusbult, C.E., I.M. Zembrodt, & L.K. Gunn. 1982.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romantic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230-1242.
- von Tadde, E. 2004. “Der Souverän dankt ab.” *Die Zeit*, Nr. 42(04/07/10).

[ABSTRACT]

## A Generation Sociological Consideration on 'Candlelight Protest'

Chun, Sangchin | Sogang University

My study is an attempt to explain the candlelight vigils generation-sociologically. It deals with two questions: Why do the age of twenties negatively participate in the candle demonstration?; What are problems of the existing generation-sociological explanation for it? The study starts from Ehrenberg's proposition of psycho-sociology which combines neoliberalism with a depression. In the neoliberal regime intensive competition forces either the age of twenties to preoccupy a self-management or makes it to take a depression. The result is the very political apathy. The generation discourse which regard generations (Generationseinheiten) as a specific one is the second question with which the study deals. This study reveals limits of the generation discourse which do not consider various types of generation in the real world. In addition, the study shows combining the limits with researchers' own epistemology which emphasizes on expectations and apprehensions of adult generations rather than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generation.

---

**Key Words** | Candlelight protest, generation, depression, self-management, political apathy, generation unit

